

목포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정확도 향상

누리집개선 정보안내 기능 확장 등
차고지·회차지 출발 정보 한눈에
행사·긴급상황 발생시 안내 추가
“지속 보완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전라남도 목포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기능 개선을 4월 중 완료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실시간 버스 운행상황은 목포시교통정보센터 또는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하며 버스도착 예정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정보제공 다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

버스도착예정시간 정확도 향상 △목포시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개선 △버스정보안내기 기능 확장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목포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은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기존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화됐다.

시민들은 △차고지·회차지 버스출발정보 △운수업체 정보 등을 직관적인 화면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는 행사 및 긴급상황 발생시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날씨 정보도 개선해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영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 버스 운행상황은 ‘목포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이나 카카오톡의 ‘초정밀버스’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수강생 모집… 150명 선착순

전라남도 목포시는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평생교육 거버넌스 기반, 목포사랑 시민대학’ 1기 수강생을 최초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사랑 시민대학은 ‘글로벌대학30’과 연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목포시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공동 운영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목포시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목포시민 및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문자격, 인문사회, 문화예술, 건강스포츠, 미래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시민대학은 연 2회 운영되며 올해는 상

반기 1기(5-8월), 하반기 2기(9-11월)로 진행된다.

5월12일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개강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1기의 교육 기간은 5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12주간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육은 국립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와 남악캠퍼스에서 이뤄진다.

조경기능사(필기), 노인운동지도자, 공감과 소통의 말하기 등 총 8개 강좌에 15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며 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누리집, 남악캠퍼스 평생교육원 2층 행정실 방문, 전화(061-270-1612)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녹색전국연합 목포지회 직원들이 지난 20일 서산초등학교 후문 공한지 월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문예회관, 내달 17일 연극 ‘레미제라블’ 공연

전라남도 목포시는 오는 5월17일 오후 2시와 7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획공연 연극 ‘레미제라블’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극단 로알씨어터가 연출을 맡아 공연한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무려 16년에 걸쳐 집필한 역작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원제처럼 한 인간의 구원과 용서, 사회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무대 위에 담아냈다.

이번 무대는 원작의 고전미를 살리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관객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윤여성, 김명수, 임동진, 문영수 등 관록 있는 연기자들과 김기리를 비롯한 젊은 배우들이 각기 다른 개성과 호흡으로 풍성한 극을 완성한다.

관람은 8세 이상 가능하며 전석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목포·신안·무안 지역 주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티켓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목포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회관공연팀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중대재해 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라남도 목포시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1일 ‘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관리 책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오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무, 현장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오

후에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 및 발주부서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계약 및 현장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각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는 반응이다. 또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법령 해설은 물론 실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목포=정기찬 기자

녹색전국연합 목포지회, 유달동 청결 활동

(사)녹색전국연합 목포지회가 봄 행락철 관광객 맛을 위해 최근 서산초등학교 후문 공한지 일대에서 청결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청결활동은 녹색전국연합이 주관하고, 유달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유달동 자생조직연합이 함께

참여해 총 40여명이 힘을 모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서산초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초작업을 펼치며 지역 미관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번 활동은 24일 개막하는 ‘2025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선수단과 관광객을 쾌적하게 맞이하기 위한 사전 준비

일환으로 마련됐다.

내달 예정된 뮤지컬 등 각종 문화 행사에도 대비해 정기적인 청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숙자 지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청결활동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과 유달동 자생조직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유달동뿐 아니라 목포시 전체가 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또바기봉사회, 만호경로당서 점심 나눔 봉사

전라남도 목포시 또바기봉사회는 최근 만호경로당에서 어르신 50여명을 초청해 따뜻한 점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주미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재료로 국, 밥,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사랑 가득한 집밥 한 상을 차렸다.

식사 시간에는 하모니카 연주, 노래 공연 등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무대가 펼쳐져 어르신들이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주미순 회장은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어르신들께 기쁨이 되었다니 보람차고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담은 식사를 어



목포시 또바기봉사회가 지난 17일 만호경로당에서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목포시 제공

르신들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결성된 또바기봉사회는 이름처럼 ‘언제나 한결같이’라는 마음으

로 매달 목포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안부를 전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